

# 대규모 정부사업의 반복된 철회가 마을주민에게 미친 심적 영향 분석\*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Continuous Withdrawal of the National Project  
on Villagers

김민주\*\*

Kim, Min-Ju

##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장소(변화)에 의한 심적 영향
- III. 선행연구 검토
- IV. 사례 분석: 동남권 신공항 사업과 가덕도 대항마을 주민
- V. 연구의 함의와 결론

본 연구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을 사례로 대규모 정부사업이 반복해서 추진되고 동시에 반복해서 철회됨으로써 마을주민들에게 미친 심적 영향을 분석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소규모 마을을 대상지로 하여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사업이다. 두 번의 추진과 두 번의 철회가 있었던 독특한 사례로서, 이 과정에서 사업의 대상지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은 마을이라는 장소를 사라지게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을주민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사업이 반복해서 추진되고 반복해서 철회될 때 마을이라는 장소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장소앵착이론(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근원성)에 기초하여 사업의 대상지 중 한 곳인 가덕도 대항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1923)

\*\*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논문 접수일: 2019. 11. 6, 심사기간: 2019. 11. 6 ~ 12. 5, 게재확정일: 2019. 12. 5.

측면의 심적 영향을 도출하였다. 장소애착 심정의 변화, 대안적 장소를 통한 장소애착 심정의 지속에 대한 소망, 장소상실의 주체인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의 강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부사업이 추진될 때나 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때 해당 마을주민들에 대한 심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 주제어: 동남권 신공항, 국책사업, 장소애착, 가덕도 대항마을

This study analyzes the psychological effects on the villagers after large-scale government projects were repeatedly withdrawn. The construction of a Southeastern New Airport was a national project to build an airport in a small village. This project was a unique case where it was attempted twice but both were withdrawn. However, despite the project to make the town disappear, the villagers were exclud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sychological impacts of villagers when the project is repeatedly promoted and withdrawn.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theory of place attachment(place identity, place dependence, place rootedness), the residents of Gadukdo village were interviewed and non-participant observation was conducted. As a result, three aspects of psychological effects were derived. These include the weakening of place attachment, the hope of continuing the attachment of places through alternative place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sense of complianc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hat caused the loss of place.

□ Keywords : Southeastern New Airport, National Project, Place Attachment, Gadeokdo

## I. 서론

정부는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사업 대상 장소의 규모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언제나 큰 규모의 장소가 사업 대상지로 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소규모 장소인 특정 마을이 그 대상지가 되기도 한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미치는가에 따라 비록 소규모 마을이 사업 대상지가 되더라도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선 공약으로까지 거론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정부사업인 반면, 그 후보 대상지 중 한 곳은 소규모의 섬마을(가덕도 대항마을)이었다. 단순히 볼 때 사업과 대상지 간 규모의 차이가 분명한 사례이다. 그런데, 이 사례는 단순히 그러한 규모 차이의 특징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 추진이 두 번 반복해서 이루어졌고 동시에 두 번 모두 철회되는 경험을 한 독특한 사례에 해당한다. 본 연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은 바로 이때 마을주민들에게 미친 심적 영향이다. 국가차원의 대규모 사업이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 1차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사업의 대상지인 소규모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사실,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두 번 반복해서 추진되고 또 반복해서 철회될 때 정작 해당 마을주민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아래에 인용된 것과 같이 마을주민이 한 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반복해서 추진되었고 또 반복해서 철회됨으로써 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에게 미친 심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신공항 건설 사업이 워낙 큰 국가사업이다 보니,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입장에서 보면 우리 같은 이 조그마한 섬사람들이 뭐가 중요했겠습니까?”(C, 남성, 60대)<sup>1)</sup>

이때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은 여러 차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정부사업에 따라 장소로서 소규모 마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을이라는 장소에 기반한 주민들의 심적 영향에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동남권 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대상지 마을의 존재에 버금갈 정도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마을이라는 장소의 변화가 주민들에게 미

1) 본 논문에서는 인터뷰 및 비참여관찰 대상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호, 성별, 연령’으로 표시하였다. 기호 순서는 IV장의 2에서 언급되어 있는 순서로서 A부터 O까지이며, 총 15명이다.

치는 심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3자의 눈에는 단순한 공간으로 비춰지는 사업 대상지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해당 마을의 주민들에게는 그 마을은 공간(space)이 아닌 장소(place)가 되며, 이 장소는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공항건설 계획과 추진은 마을주민들에게 심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섬마을의 경우 생계수단이 섬이라는 특수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변화가 더욱 사람들의 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Morris(2016)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흔히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생산수단, 에너지 획득)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가치관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업에 의한 생계수단을 가능하게 하는 ‘섬마을’이라는 장소의 변화(특히 장소상실)도 마을주민들에게 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의 일부분은 장소를 매개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마을이라는 장소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반복된 추진과 철회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을 분석한다.

## II. 이론적 배경: 장소(변화)에 의한 심적 영향

장소는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 Najafi and Sharif(2012)와 Hashemnezhad, Heidari and Hoseini(2013) 등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도 존재하고 있다. 장소 자체가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장소의 변화도 심적 영향을 야기한다. 그래서 장소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들은 장소 그 자체뿐 아니라 장소의 변화를 함께 다루고 있다. 많은 경우 장소가 미치는 심적 영향에 대해 장소의 변화를 전제하고 설명하기도 한다.

장소의 변화는 사소한 변화에서부터 비교적 큰 폭의 변화까지 다양하다. 장소의 상실 및 소멸이나 장소로부터 완전한 이탈은 큰 폭의 변화에 해당될 수 있다. 마을이라는 장소를 놓고 볼 때 마을의 상실 및 소멸과 마을로부터 완전한 이탈이 그렇다. 그런 점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계획된 곳에 위치한 마을의 경우, 만일 공항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토지에 기초한 물리적 ‘공간’은 그대로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주하던 마을이라는 ‘장소’는 상실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대상인 가덕도 대항마을은 마을 전체가 공항부지가 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마을이라는 장소의 변화가 주는 심적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 예상에는 한 가지 전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공항부지로 선정되어 장소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인지가 전제된다는 점이다. 특정 장소에 변화(예, 공항부지 선정 등)가 가해질 계획이 단순히 세워져있다는 것 이상으로 어떤 행위나 사건 등에 따라 실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장소 변화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장소 기반의 심리적 영향도 받게 된다. 이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장소 변화를 야기하는 행위나 사건의 반복이다. 실제 결과 발생의 유무(有無) 이전이라고 해도 행위나 사건의 반복은 심리적 영향을 야기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실증연구인 Zajonc(1968; 1980)에 따르면 비록 단순한 노출에 따른 반복이라고 할지라도 그 반복으로 인해 친숙함은 높아진다. 여기서 친숙함이란 반복이 주는 자극발생에 따른 심리적 영향 발생의 가능성을 말한다. 특히 Brewin, Dalgleish, and Joseph(1996)이나 Ehlers and Clark(2000)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행위의 발생 이전에 반복적인 언어적(verbal) 혹은 지각적(perceptual) 형태의 인지적 처리는 이후 정서나 감정 등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 일정한 계기(스트레스 유발 정도의 계기)가 있다면 그 영향의 정도는 더욱 강해진다. 동남권 신공한 건설 추진과 철회를 처음 경험한 이후에 반복해서 동일한 경험(사업 추진 행위의 지각과 언어적 되풀이)을 한 것은 비록 계획 단계라고 할지라도 해당 계획에 따른 장소 변화를 인지하는 정도를 높িয়ে 한 것이며, 그에 따라 반복 효과에서 비롯되는 친숙함처럼 장소 변화로부터 장소 기반의 심리적 영향이 발생된다. 따라서 일정한 계기로서 두 번의 반복된 사업 추진과 철회는 대상지인 마을이라는 장소의 변화 가능성의 인지를 높여서 장소 변화에 따른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반복된 철회 경험에 따른 이러한 장소 혹은 장소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심적 영향은 어떠한가? 사실, '장소'는 개념 속에 인간에게 미치는 심적 영향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공간'과 구분되는 '장소' 개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과 장소의 개념이 구분된다는 것이 배타성에 기초한 완전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맥락에 따른 의미 구분은 가능하다. Tuan(1977)이 구분하듯이 공간은 장소보다는 추상적인데, 공간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공간은 장소가 된다. Tuan(1977)이 인용한 말을 보면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햄릿이 이 성에 살았다고 하니깐 성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는 일종의 장소감(a sense of place)을 느낀 것인데, 장소감을 느끼게 되면 공간은 더 이상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과 감정이 투영되어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인지되거나 수용되면 장소가 되는 것이다(Canter, 1997). 어떤 공간이 경험과 감정 투영으로 행복한 장소 혹은 슬픈 장소가 된다는 사례도 마찬가지다(Honkavaara, 1961: 41-45). 개념적으로 공간과 달리 장소는 인간의 감정적 인지를 작용시키면서 규정된다는 점에서, 장소라는 대상 그 자체가 인간에게 심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장소가 인간에게 미치는 심적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이론이다. 장소애착이란 개인 및 집단과 그들의 환경 사이에 형성되는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의 감정이기도 하고, 장소 접근에 의해 생기는 심리적인 좋은 감정 혹은 장소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지게 됨으로써 생기는 괴로운 심정이기도 하고, 장소에 대한 정서적 투영의 감정, 특정한 장소에 의해 생기는 개인적 가치와 정체성의 정도 등을 의미한다. 연구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사람과 특정 장소 사이에 생기는 감정적인 유대감이나 연대감을 장소애착이라고 한다(Najafi and Sharif, 2012: 7637-7638; Hidalgo and Hernandez, 2001: 273-274).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서적 감정인 애착, 즉 장소애착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장소애착이론이다(Altman and Low, 1992).

구체적으로 장소애착이론에 따르면, 장소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애착의 형태로 발현된다. 애착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은 경험과 기억 등이 내재되어 있는 장소가 주는 '의미(meaning)' 창출과 관련된다(Manzo, 2005). 즉, 어떤 사람이 특정 장소에 대해 애착을 느끼는 것은 그 장소가 의미를 지니거나 혹은 의미를 갖게 해주거나 또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때 '의미'란 무엇인가? 장소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의미는 장소가 사람에게 미치는 심적 영향을 말한다. 장소에 의한 의미 창출의 모습이 장소에 대한 애착 발현으로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소애착이론에서는 장소가 사람에게 미치는 심적 영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 장소근원성(place rootedness)이 그것들이다.

장소정체성은 장소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서 비롯된 애착 감정이다. 사람이 장소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장소에 대해 정서적 혹은 상징적 애착(symbolic attachment)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어서 설명할 기능적 애착(functional attachment)인 장소의존성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장소정체성은 장소와 관련된 의식적·무의식적인 이상, 신념, 선호, 감정, 가치, 목표, 행동 성향 등을 통해 개인적 정체성을 정의하게 되는 자아 차원의 애착을 말한다(Proshansk, 1978). 장소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장소에 의해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장소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뿐 아니라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에 소속되려는 감정을 지니고 있고, 그 특정한 장소는 다른 장소와는 구분된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장소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지하면서 드러내기도 한다(Shamsuddin and Ujang, 2008). 다른 공간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그 장소만의 정체성을 느끼고 그것이 자기 정체성과 일치되면서 나타나는 애착이다. 이처럼 스스로를 규정하거나 인지할 때 특정한 장소가 상징적으로 중요한 대상이 되어 감정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 장소 정체성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소정체성은 지형이나 지세와 같은 장소 아이콘(place icon)

이 풍부하다면 더 강화된다(Hull, Lam, and Vigo, 1994).

장소의존성은 장소 혹은 장소 내의 사회적·물리적 자원이 개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욕구(needs)에 강하게 부합되는 정도를 인지하면서 생기는 애착이다. 장소의존성은 정서적 혹은 상징적 애착인 장소정체성과는 달리 기능적 애착에 해당된다. 즉, 장소가 개인에게 특정한 목표나 활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여겨지거나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면서 강하게 인지되는 애착이다(Najafi and Sharif, 2012: 7638-7639). 사람들에게 장소의존성이 작동되는 모습 중 하나는, 현재의 장소가 제공하는 기능과 효용을 대안적 장소가 제공하는 기능과 효용으로 비교하는 것이다(Smaldone, Harris, and Sanyal, 2005).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제공하거나 실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더 적절하게 제공하는 장소에 애착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장소의존성은 장소로부터 기능적인 필요성이 충족되는 강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장소근원성은 장소에 뿌리내려 이어져오면서 생기는 애착이다. 오랫동안 혈통 유지가 이어져온 토속성(autochthony)에 기반한 감정이다. 조상이 뿌리 내린 장소에서 후세대는 장소로부터 스스로의 근원의식을 느끼게 된다. 장소근원성은 장소에 존재하면서 갖는 자랑스러움이기도 하고 외부와는 분리되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때로는 장소근원성이 배타성과 폐쇄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장소의 계보에 대한 강렬한 감정인 장소근원성은 비록 장소가 비옥한 토지를 제공해서 물질적 풍족함을 주지 못한다고 해도 그와 상관없이 생기는 애착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살펴본 장소의존성과는 달리 장소가 주는 기능적인 면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기는 애착이다. 유용한 기능적 의존성이 없다 해도 해당 장소는 나의 근원을 말해주는 장소이므로 애착이 생긴다. “죽기 전에 내가 뛰어 놀던 마을 동네 어귀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심정이 그렇다. 그리고 장소정체성과도 달리 장소 아이콘들에 의해 인식과 관념이 더 강화되거나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장소근원성을 조용한 장소애착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다(Tuan, 1977). 장소가 주는 근원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장소정체성이나 장소의존성이나 장소근원성과 같이 장소가 주는 심적 영향으로서 애착은 장소에서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쉽게 관찰된다. 그 장소가 특정하게 한정되어 있는 곳이면서 비교적 긴 시간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Tuan, 1977; Hummon, 1992; Smaldone, 2006; Moore and Graefe, 1994).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장소애착이 불변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람들이 장소로 인해 장소애착이라는 심적 영향을 받았다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만일 그 장소가 변하게 되면 역시 장소애착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Tuan(1977)이 장소의 가시성(visibility) 통해 장소의 창조(creation of place)를 설명했듯이 장소의 소멸과 같은 기존 장소의 비가시성(invisibility)에 따른 장소애착의 변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고, 또

Relph(1976)가 말한 대중적 가치와 자본주의와 산업화나 권력 등에 의해 발생하는 장소의 상실(placelessness)과 장소의 진정감(authentic sense of place) 감소 역시 장소변화에 따른 장소애착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거주이동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도 장소변화에서 비롯된다(Coles, 1972: 67). 이처럼 장소 그 자체에 생기는 변화는 장소로부터 애착을 지니고 살아가는 장소거주민들에게 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Ⅲ.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사업이 마을주민들에게 미친 심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본 연구의 사례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선행연구, 그리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장소애착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들이다.

첫 번째 부류의 연구들은 주로 정부사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주민들의 갈등 경험을 다루고 있다. 정부사업이 갈등을 야기한다는 상황이 전제되고, 그 과정에서 갈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사항을 부분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다. 그래서 이 연구들은 공공갈등의 원인이나 요인분석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임동진, 2011; 장현주, 2008; 김승일, 2011; 조경훈·유민이·이숙중, 2013; Mazmanian and Morell, 1990), 갈등의 구조나 유형화 분석과 그 해결방안 제시(하혜영·이달곤, 2007; 채종현, 2009; 허준영·문지은, 2017; Ross, 1993), 갈등과 관련된 시스템과 과정 및 제도와 관련된 논의와 정책적 함의(박홍엽, 2006; 신상준, 2017; Pondy, 1967)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이 연구들은 주민들의 갈등 경험을 다루면서 갈등관리에서 고려해야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갈등의 ‘쟁점’이나 갈등의 ‘관리’가 논의의 초점이기 때문에 정부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심적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 그런 가운데 오영석(2011)의 연구는 공공갈등에 따른 주민들의 심리를 연구의 초점에 두고 있다. 이 연구의 경우 지역사회갈등에 관한 사례를 통해 공공갈등이 주민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이때의 심리적 영향은 갈등에 따른 심리적 피해로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스트레스 이외에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사례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세부적으로 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간 갈등을 기술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고(박태우·이상식, 2013; 안종묵, 2012; 이윤경, 2012; 이진수·이혁재·조규혜, 2015; 허철행 외, 2012; 황동현·서순탁, 2011), 두 번째 부류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시 고려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다(김현조 외, 2013; 박영강·이수구, 2016; 유광의, 2010; 이희수 외, 2011). 첫 번째 부류의 연구가 갈등사례에 초점을 두었다면, 두 번째 부류의 연구는 입지 선정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류의 연구도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최소화나 해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사례로 하는 거의 모든 연구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직·간접적으로 논의 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동남권 신공항 선정과 관련한 갈등 구조를 이해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제시와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선행연구들은 두 번의 철회가 이루어진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첫 번째 철회 당시의 시기에 한정되어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즉,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이 두 번 철회된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분석들이면서 동시에 마을주민들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다. 특히 두 번 철회되면서 마을주민들이 겪은 심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장소애착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이다. 여기에는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장소애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연구(Eisenhauer, Krannich, and Blahna, 2000; Pretty, Chipuer, and Bramston, 2003; Shamsuddin and Ujang, 2008; Vorkinn and Riese, 2001)와, 장소애착의 형성요인(김동근, 2011; 박경윤, 2014; 송화성·윤자연, 2015; 최열·임하경, 2005; Rollero, and Piccoli, 2010; Smaldone, 2006)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 대부분 장소애착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실시하고 있고,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장소로는 주거지, 광장, 모임구역, 특정 지역(지역 구분 단위), 관광지, 휴양지, 특정 자원 소재지(천연자원 등) 등이다. 이 연구들은 장소애착이론의 유용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애착이론의 외연확장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장소애착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변화에 따른 장소애착의 변화 여부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장소들은 특정 계기(예, 정부사업 등)에 의해 변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장소로부터 형성된 애착의 심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이나 사업은 장소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이 밝혀준 장소애착이론의 유용성은 정부사업 시행에 따른 장소 변화와 장소애착에 미친 영향으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장소애착이론을 적용했던 기존 연구들이 아직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다루지 않은 연구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부족했던 마을주민들의 심적인 영향에 초점을 둔다. 정부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 상황에 초점을 두고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그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어떤 심적인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분석의 초점에서 차별성을 지니는 것으로, 대규모 정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 그 자체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사업 대상지의 마을주민들에게 더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사업으로 인해 갈등 상황이 생겼다면 주민들이 겪는 심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단순히 갈등을 겪는다거나 갈등을 경험하는 정도로만 여기는(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주민들의 심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 대상지로서 마을이라는 장소가 사라질 때의 마을주민들의 심적인 영향에 초점을 둔다.

둘째,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중 독특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지닌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동일지역을 두고 두 번의 철회가 있었던 사례다. 정부사업에 따른 갈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두 번의 철회를 경험한 사례가 분석되지는 않았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사례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도 모두 두 번 철회를 경험한 이후에 분석된 것은 아니다. 대규모 정부사업이 동일한 대상지를 두고 두 번의 철회가 있었다는 것은 흔한 사례가 아니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일반적인 경험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 사례를 분석한다면 두 번의 사업 철회는 그 자체가 독특한 정책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 속성을 반영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두 번 철회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분석 사례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 분석을 위해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및 비참여관찰을 한다는 점에서 분석방법에서도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의 연령과 섬마을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주는 특성(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으로 인해 비참여관찰의 용이성 존재)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을 활용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정부사업의 갈등 사례나 동남권 신공항 사례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분석방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만의 차별성이 된다.

넷째, 본 연구는 장소애착이론을 적용해서 마을이라는 장소가 마을주민들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선행연구와는 달리 정부사업에 따른 장소의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기존에 장소애착이론이 적용된 연구들과는 달리 장소의 존재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데서 나아가 장소변화(가능성)가 장소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장소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정부의 대규모 사업을 통

해 장소애착을 발생시킨 장소의 변화가 마을주민들의 애착에 어떤 심적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 점은 다양한 장소를 대상으로 장소애착이론을 적용했던 선행연구들의 외연확장의 성과를 더 넓히는 계기(특히 행정 및 정책 분야)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V. 사례 분석: 동남권 신공항 사업과 가덕도 대항마을 주민

### 1. 사례 개요

본 연구는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 주민들의 심적인 영향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동남권 신공항 대상 후보지는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과 밀양 하남읍 소재 마을들이 해당되는데, 본 연구는 가덕도 대항마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가덕도 대항마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주제를 분석하는데 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두 번 철회된 경험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정 마을이라는 장소에 한정되어 거주하면서 두 번의 국책사업 철회를 경험하여 그로 인한 심적 영향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가덕도 대항마을이 그에 적합한 사례에 해당된다. 무엇보다도 대항마을은 밀양 하남읍에 소재하는 마을들과는 달리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가 한 개의 특정한 마을에 한정되어 있는 '섬마을'이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마을이라는 장소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리적 공간의 경계가 뚜렷하고, 육지의 마을과는 달리 주민 구성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매우 드물어서 두 번의 국책사업 철회를 함께 겪으며 그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심적 형상도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다. 마을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 간의 심적 교류도 활발하다. 이는 다음에 설명할 분석방법(인터뷰, 비참여관찰)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서 특정 마을에 해당하는 가덕도 대항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2018년 통계 기준으로 가덕도 섬의 전체 인구는 3,823명이고(강서구, 2018), 이 중 동남권 신공항의 직접적인 대상지였던 대항마을의 주민들은 약 300여명이다. 대항마을의 경우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약 300여명이 되는 것일 뿐 사실은 300여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주소지는 대항마을로 되어있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300여명 보다 적고, 또 주민등록 통계 기준과는 달리 대항마을은 두 곳의 작은 비공식적 마을을 포함하고 있어서(세바지 마을, 외양포 마을) 대항마을 주민만을 고려하

면 200여명의 수준으로 더 적어진다.

대항마을 주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은 어업이지만, 농사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층은 주로 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여기서 농사는 생계수단이라기 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농작물을 얻는 수준이다. 따라서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전형적인 섬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관광객 대상의 숙박업과 식당 등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산발적인 부업에 가깝다. 대항마을은 인접한 다른 마을들과는 달리 섬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과 통신 등의 편의성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섬의 다른 마을과는 달리 구획이 명확한 별도의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다. 대항마을 역시 여느 어촌처럼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고 마을 운영은 개발위원회가 중심 기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독특한 것은, 경제공동체로서 기능하는 전통어로방식의 ‘승어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마을 운영의 공동 자금 및 마을주민들의 공동 수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전통 계승과 경제적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승어들이 존재하는 것은 마을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항마을은 부산시에 속해있지만 섬마을이기 때문에 비교적 개발이 덜 되었고, 특히 가덕도 중에서도 대항마을이 더욱 그렇다.<sup>2)</sup> 그러다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다. 최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3년 1월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적당한 위치를 찾겠다는 말에서 시작되어, 2006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 공식적인 검토를 지시하게 된다. 2007년 11월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는 결과 발표가 있었고,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도 동남권 신공항 사업 추진 의사를 보이면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였다. 당시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가덕도와 밀양을 선정하였고, 두 지역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타당성이 낮다는 결과에 따라 2011년 3월에 사업을 철회하게 된다. 하지만 2012년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다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언급하면서 재추진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2014년에 국토부는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2015년 6월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역시 후보지는 가덕도와 밀양이었다. 하지만 2016년 6월에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가덕도와 밀양에 대한 사업 계획을 철회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지였던 가덕도 대항마을 주민들이 겪은 두 번의 사업 철회의 경험 이력이다. 당시 사업계획(조감도)에 따르면,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

2) 사실, 부산시민들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생기기 이전에 가덕도는 물론이고 대항마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그래서 본 조사를 진행할 때 대항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같은 부산이라고 해도 그동안은 알지도 못했으면서 신공항 건설로 인해 다들 아는 체한다” 며 다소 비판적인 의견을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F, 여성, 80대).

도에 건설이 될 경우 대항마을은 그 전체가 사라지고 마을의 터전은 공항과 그 부대시설의 부지가 되는 것이었다. 즉, 직접적인 사업대상 부지는 대항마을이었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곧 마을 자체의 상실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는 Relph(1976)가 말한 중앙의 권력(central authority)에 의한 장소상실의 한 예가 된다. 중앙정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특정 장소로서 마을이 사라지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장소에 의해 형성되어 있던 마을주민들의 장소애착의 심정이 장소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반복된 특정 경험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반복된 특정 경험이 촉발요인이 되어 기존 장소의 변화 가능성을 높였고(원인), 그에 따른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 및 장소근원성으로 구성된 장소애착에 미친 심적 영향(결과)을 분석하는 것이다. 장소가 장소애착 형성의 핵심 요인이 된다는 장소애착이론과 반복적 자극 및 행위에 따른 심적 영향에 기초해 볼 때, 반복된 특정 경험에 의한 장소의 변화는 장소애착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본 연구의 분석 사례에 적용해보면, 촉발요인은 두 차례의 사업추진과 두 차례의 철회를 보인 반복적 행위의 경험이며, 그에 따라 대항마을 자체의 소멸과 같은 장소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인지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는 장소애착 심정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결과와 관련하여 장소애착의 심정 변화 이외에도 부차적인 심적 영향에 대한 결과도 도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에서 실제 확인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규모 정부사업으로 인해 마을이라는 장소가 상실될 수 있는 상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경험한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에 대해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을 활용하여 장소애착이론에 기초해서 분석한다. 즉,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소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장소에 의한 심적 영향을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과 장소근원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를 위해 현지조사를 통한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의 방법을 활용한다.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은 분석대상 마을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한 방법이다. 앞서(선행연구와의 차별성)도 언급했듯이 분석대상 마을인 대항마을은 고령층 중심의 마을이면서, 동시에 섬이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령 등을 고려해서 설문조사보다는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마을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비참여관찰을 통해 정부의 대규모 사업이 두 번 철회됨으로서 경험한 심적 영향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인터뷰는 마을의 전·현직 운영위원(개발위원장 및 개발위원, 어촌계장)들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비참여관찰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은 총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어촌계장 1명(70대 남성: A), 개발위원장 1명(70대 남성: B), 개발위원 3명(60대 남성 2명: C, D ; 70대 남성 1명: E), 일반주민 5명(80대 여성 2명: F, G ; 40대 남성 1명: H ; 30대 남성 2명: I, J)이다. 비참여관찰은 또 다른 일반 주민 5명(50대 여성 2명: K, L ; 60대 여성 3명: M, N, O)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되었다. 1차 인터뷰는 2017년 8월 23일과 24일, 2차 인터뷰는 2018년 2월 11일과 12일에 이루어졌고 비참여관찰은 2018년 8월 14일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추가 인터뷰는 2019년 1월 5일에 이루어졌다.<sup>3)</sup>

질문은 기본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서 최대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먼저 한 뒤, 장소애착에서 구분하는 심적 영향의 세 측면(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착근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장소애착이론에 기초한 질문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질문들을 참조해서 활용했다(최열·임하경, 2005; Hidalgo and Hernandez, 2001).<sup>4)</sup>

3) 추가인터뷰가 진행된 이유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로 당선된 현 부산시장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총리실에서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는 철회된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을 다시 높이는 발언이기 때문에 추가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행되었다.

4) ① 포괄적인 질문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처음 추진될 때 어떤 심정이었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두 번째로 추진될 때 어떤 심정이었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두 번 철회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세 번째로 또 추진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이외의 정부사업이 추진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를 사용하였다.

장소애착에 기초한 질문은, ② 장소정체성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잡고 있는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이 본인의 삶과 어떤 관계로 자리 잡고 있는가?”,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마음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철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고, ③ 장소의존성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얼마나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마을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마음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철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고, ④ 장소근원성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지니고 있는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얼마나 뿌리내렸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을 잠시 떠나 있을 때(과거 경험이나 미래 예상) 마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마을 사람들 간에 결속력이나 소속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마음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철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이다.

### 3. 분석 결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대항마을 주민들에게는 마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상실이 된다. 장소상실이 중앙권력에 의해서도 발생되듯이(Relph, 1976),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국가에 의해 발생하는 장소상실로서 그곳에 사는 대항마을 주민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은 장소상실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겪었고, 동시에 두 번 모두 철회되는 경험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주민들은 장소가 주는 애착에 기초한 심적 영향을 받았다. 특히 성인에게 장소는 수년에 걸쳐서 정서를 축적하고 증가시켜서 깊은 의미가 배게 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Tuan 1977), 장소상실의 가능성은 마을주민들에게 심적 영향을 야기한다. 실제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비록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들과 장소애착에 기초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 그리고 비참여관찰시 대화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지만,<sup>5)</sup> 마을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의견이나 마음 상태는 비교적 명확히 드러났다.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심적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장소애착(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근원성) 심정의 변화, 둘째 대안적 장소를 통한 장소애착의 지속에 대한 소망, 셋째 장소상실의 주체인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의 강화가 그것이다.

#### 1) 장소애착 심정의 변화

우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마을주민들에게 기존에 지니고 있던 장소애착으로서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 그리고 장소근원성의 심정에 변화를 야기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건설이 두 번 시도되는 과정에서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장소애착 심정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현재는 두 번 모두 철회된 상태이지만 또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거라는 예상과 실제로 또 다시 추진하려는 부산시(시장)의 강한 의지, 그리고 설사 공항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개발로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마을주민들의 예상 등이 기존에 그들이 지녔던 장소애착에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부산시는 2018년 연말에 중앙정부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산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가덕도 개발의 잠재력을 확인하면서 설사 신공항 건설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여 관련 계획 등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마을주민들에게 기존의 두 번 추진과 그 철회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거주지인 마을이라는 장소의 상실 가능성을 인지하도록 해주었다. 즉, 마을주민들이 단순히 사업이 철회되

5) 특히 인터뷰 대상자들 중 70대 이상의 마을주민들이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장소상실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기존에 지녔던 장소애착의 마음에 점점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이어지는 장소애착별 인터뷰 및 비참여관찰 내용(인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장소정체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래 인용된 마을주민들의 말에서 여러 표현들로 드러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섬마을이라는 장소로 인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주로 ‘섬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나’, ‘어민’, ‘어업’, ‘섬사람’, ‘섬놈’ 등으로 표현하며 인식하고 있다. 특히 ‘육지 사람’과 대비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섬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지칭하며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섬에서 살아오면서 학습하고 생활하면서 그것들이 몸에 밴 현재의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나는 배운게 섬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것이라서 나한테 이 동네를 떼 놓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 차라리 신공항 그거 안 들어오는 게 낫지. 그래야 이 동네도 있고 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저렇게 국가에서 들어온다고 하니 찹찹한 마음이 듭니다.”(I, 남성, 30대)

“나 같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 고기 잡아야지 나와 식구가 묵고 사는데… 나는 그렇게 섬사람이고 섬놈입니다. 그런데 신공항 들어오면 되겠어요? … 국가가 하는 일을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 참 걱정입니다.”(J, 남성, 30대)

“우리 같은 어민들은 바다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모두 이 바다 덕분에 살아가고 있고, …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공항 들어오면 그런 게 없어지지, 계속 되겠습니까? 섬에서 평생 살아왔는데 섬이 내 인생이지. 그런데 저렇게 공항 생기니 마니 하면서 …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D, 남성, 60대)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 나도 마찬가지로 이런 섬에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내 이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G, 여성, 80대)

그런데, 대항마을이라는 섬마을에 한정된 장소에 살아가면서 장소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이들은 공항 건설에 따라 마을이라는 장소가 사라질 때 자신들의 장소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려의 마음으로 드러내고 있다. 위에서 “찹찹한 마음이 듭니다.”, “참 걱정입니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sup>6)</sup> 등의 심적 상태가 그것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전혀 언급도 없었던 장소 자체의 상실 가능성이 최근에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제 계획 추진의 모습으로 계속 보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두 번이나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의 말에서도

<sup>6)</sup> 캐어묻기(probing)를 통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의 뜻을 재차 확인한 결과 “마음이 좋지 않다”, “속상하다” 등의 뜻으로 설명해주었다.



드러나고 있다.

“언제가 되었던 뭐가 여기 들어서지(개발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이 부락(마을)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되게 만듭니다. 이 부락이 없어지면 이 속에 살던 부락 사람들이나 나나 제대로 뭐 살아가겠습니까.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마을이) 없어지면 뭐 제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부락이 있어야 여기 살던 나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 그게 문제고 걱정입니다. 나라가 한다는데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 걱정이고… 뭐가 되도 될 거라 생각되니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이 부락이 있어서 내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될 거니까,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C, 남성, 60대)

마을주민들은 스스로를 마을이라는 장소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라고 여기면서 마을이 없어진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고 마음 붙일 곳도 없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다. 섬마을이 곧 자신들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의 인생을 섬마을에 기반해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지만, 그동안 정부가 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섬마을에 기반한 스스로의 존재 인식에 대한 한계를 ‘마음이 좋지 않다’는 등의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마을이 있어야 자신도 있다고 여겼지만 이제부터는 그와는 다르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장소정체성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장소정체성과 더불어 마을주민들의 장소의존성의 마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섬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업이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공항이 생겨 마을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곧 현재의 생업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동안 공항 건설이 추진되면서 겪은 장소상실 가능성의 경험, 그리고 또 다시 공항 건설을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에서 과거보다 마을이라는 장소에 덜 의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 같은 뱃놈이자 섬놈이 어디 가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육지에 가서 살 방법이 많지도 않고… 여기 아니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저렇게 난리니 진짜 이제 쫓겨나가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 아니면 못살 거 같은데, 그래도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른데서 뭐 먹고 살지 고민도 되고…”(I, 남성, 30대)

“물 질(어업 이외의 다양한 바다 수확 활동)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이 동네가 없어지고 여기

를 떠나면 어디 가서 물 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야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육지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J, 남성, 30대)

“우리는 어민이라서 공항 같은 거 안 들어오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항 들어오는 거 반대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저렇게 들어오니 마니 하니깐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이제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H, 남성, 40대)

그동안 생계와 관련해서 마을(섬)에 의존적이었던 마음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항 건설이 계속 추진되는 것은 해당 장소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들에게는 기존의 장소의존적인 심정의 변화 요인이 된다. 특히 두 번의 철회 이후에도 부산시가 2018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재추진하려는 시도로 인해 장소에 의존했던 마을주민들의 마음도 과거보다 덜해진 것이다. 이런 장소의존성의 변화는 단지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젊은 세대에만 한정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나이든 사람들도 공항이 건설되어 마을이라는 장소가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기존과는 변화된 장소의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장소의존성이 그 전보다는 덜해진 모습으로의 변화는 단지 생계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몸까지도 익숙해진 생활터전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생각에서도 비롯된다.

“이 좋은 공기 마시고 스트레스 없이 살던 곳에 사는 것이 제일 좋지… 살던 곳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 도시로 나가서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이 딱 여기에 맞춰 있는데 … 그런데 국가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나갈 수밖에…”(D, 남성, 60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살던 이곳을 떠나서 어디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절대 나가고 싶지 않은데 …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수밖에 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말고 어디서 붙어살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G, 여성, 80대)

이처럼 기능적 애착이라고도 하는 이 장소의존성은 해당 장소가 주는 기능에 기초해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리적 장소의 상실은 장소의존성의 직접적인 변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을주민들은 대부분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업 뿐 아니라 농업에 의해서도 장소의존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마을 생활에 익숙해진 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도 현재 살아가는 마을이

므로 마을이라는 장소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그런데 공항 건설이 철회된 현재 시점에서도 또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실제 정치권의 추진 움직임이 보이면서 더 이상 장소에 의존한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의존 심리가 그 전과는 달라지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장소애착의 한 측면인 장소근원성의 경우, 마을주민들은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어른들이 해오던 대로’, ‘식구’, ‘가족’, ‘공동체’, ‘고향’ 등의 단어로 마을이라는 장소에 기반한 장소근원적 마음을 보이고 있다. 마을을 중심으로 소속감은 물론이고 토속성과 전통과 혈통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소근원성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생각도 장소정체성이나 장소의존성처럼 공항 건설의 가능성으로 인해 변화된 심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주로 장소근원성이 생기도록 해준 현재의 마을 모습이 공항 건설로 인해 변화(상실)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공항이 들어서면, 대대로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살아온 동네사람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다 같이 맛있는 음식도 함께 못 나눠 먹고 이야기도 못 나누고 … 우리 터전이 없어져버리게 될 거라서 걱정입니다. 동네사람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옛날부터 다 같이 한 식구처럼 해오던 대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고향이라는 것이 버려진다고 버려집니까? 그런데 공항 들어온다고 하니 벌써 그런 걱정이 들어서 서글픍니다.”(D, 남성, 60대)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해오는 방식대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함께 공동체로 운영하고 있어서 서로 소속감도 높고 그런 마을입니다. … 공항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런건 뭐 옛날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지금도 예상을 하면서 … 이런 저런 기분이 듭니다.”(B, 남성, 70대)

“땅이고 집이고 전부 이 마을에 우리가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리잡고 있으니까 계속 살면 좋지.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에 어른들이 해오던 대로 우리도 다 같이 단합도 하고 그래왔고. 그런데 마을이 없어지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떠나야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E, 남성, 70대)

마을사람들의 말에서 ‘흩어져버리게’ 될 때의 상황이나 어디를 ‘떠난다’는 등의 가정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장소근원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근원 의식이 단번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근원성을 갖게 해주고 유지시켜주는 직접적인 대상으로서 마을이라는 장소가 없어지는 것 혹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서서히 장소근원적 심정이 과거보다는 낮게 될 것임을 느끼며 경험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장소근원성에 대해 스스로는 물론이고 다른 마을주민들의 심정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기

도 하다. 주로 ‘동네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공항 생긴다고 하면서 외지인들도 오고 개발 사업이니 뭐니 하니깐 동네사람들이 여기에 대대로 살던 그런 생각이 예전만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항 들어서면 이 마을 없어진다고 하니 옛날 어른들이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함께 살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이 조금 덜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H, 남성, 40대)

“옛날에 우리 시대가 제일 좋다. 편안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오던 대로 살면 좋은 거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해오던 대로 살던 대로 한 식구처럼 사는 게 좋은데 … 저 공항 들어선다고 하면서 동네사람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F, 여성, 80대)

“그때 공항 들어선다고 할 때(첫 번째와 두 번째 추진이 이루질 때) 이 동네사람들은 이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마음이 떠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랬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 여기서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동네사람들한테는 이제는 예전만 못합니다.”(A, 남성, 70대)

비록 현재는 철회된 상태이긴 하지만 마을주민들에게 장소근원적 심정이 과거와 달리 변화된 것은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 마을주민들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을에 뿌리를 두고 이어져오던 공동체 의식 등이 조금 덜해져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나, 특히 두 번의 사업추진이 있었을 때 마을주민들의 마음이 떠 있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다. 더구나 마을주민들은 아래 인용된 것과 같이 현재 철회된 상태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러한 장소근원적 심정의 변화를 더욱 실감하고 있다.

“두 번 시도했는데 세 번 시도 못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대로 우리가 살아온 그런 삶이 갈수록 더 예전만 못 합니다. (마을이) 없어질건데 그렇게 예전처럼 잘 되겠습니까?”(C, 남성, 60대)

이와 같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난 15여년 넘는 기간 동안 타당성 조사를 두 번이나 진행하면서, 마을주민들에게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장소상실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했다. 비록 두 번 모두 철회되었지만 여전히 장소상실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마을주민들이 느끼는 장소애착에 대한 심정도 과거와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 2) 대안적 장소를 통한 장소애착 심정의 지속에 대한 소망

이렇게 장소애착의 심정이 변화됨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동시에 하나의 소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근원성의 심정에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변화된 장소애착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대안적 장소를 통해서 변화 모습을 보이는 장소애착이라도 지속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마을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한테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들한테 보상을 주는 것 보다 지금 동네사람들이 이 동네에 함께 살고 있듯이 다 같이 살아가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H, 남성, 40대)

“우리가 (공항 건설로 마을을) 나가게 되면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주는 게 낫습니다. 보상 조금 나오는 거 그것 가지고는 살 수도 없고 … 다른데다가 지금 같은 동네를 만들어서 집을 주고 살도록 해주는 게 최고 좋습니다.”(B, 남성, 70대)

“공항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리 개개인들한테 보상을 주지 말고 차라리 공동으로 이주할 곳을 정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한 채씩 주면서 다 같이 모여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A, 남성, 70대)

으레 정부사업에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곤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마을주민들이 이주해서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대안적인 장소이긴 해도 그러한 장소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장소에 기반한 기존의 삶에서 생겼던 장소애착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때 장소애착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 정도를 되살리거나 강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은 아니다. 과거보다 장소애착의 정도가 덜해진 형태로 변화되었지만, 그것만이라도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가 낯선 동네에 가서 사는 것이 힘들 텐데, 그럼 다 같이 살 수 있는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주면 지금 이 동네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옛날 기억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L, 여성, 50대)

“이주단지가 안되면 아파트라도 지어서 그 아파트 단지가 아니면 동이라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만나서 지내기도 하고 그 아파트를 동네 삼아서 생각해도 되니깐…”(O, 여성, 60대)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장소(마을)가 없어지더라도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 계속 같이 살면서 공유된 ‘옛날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과 비록 아파트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동네 삼아서’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sup>7)</sup> 마을주민들은 공항 건설로 마을이 없어져 이주하게 되더라도 기존에 장소에 기반해서 형성된 장소애착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장소에서 장소정체성, 장소근원성, 장소의 존성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보다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장소애착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어지는 정도의 소망인데, 이는 곧 기존에 형성된 장소애착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방증(傍證)이기도 하다. 마을주민들의 이러한 마음은 기존의 장소애착이론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즉, 단순히 장소에 기반해서 장소애착이 생긴다거나 또는 장소상실 등의 이유로 장소애착이 약화된다는 등의 내용에 추가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된다. 다시 말해, 장소상실은 마을주민들이 대안적 장소를 통해서라도 기존의 장소애착을 유지해나가려는 심적인 영향을 야기한다.

### 3) 장소상실의 주체인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 강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추진되면서, 비록 두 번 모두 철회가 되긴 하였지만 마을주민들에게는 장소로서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과 걱정이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장소애착의 약화와 더불어 약화된 장소애착이라도 지속시키고 싶은 마음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는 장소의 변화가 그 장소로부터 기인한 애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장소의 변화, 특히 반복해서 장소상실을 시도하고 역시 반복해서 그 상실 계획을 철회시킨 사례는 마을주민들의 장소애착에 미친 영향에서 더 나아가, 그 장소상실의 계획과 철회를 주도한 국가 자체에 대해서도 마을주민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다. 그 영향은 마을주민들에게 대규모 정부사업을 주도하는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을 더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마을주민들은 공항 건설에 따라 마을이라는 장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말하는 중간이나 특히 대화나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을 요약해서 한 마디로 나타내면 “국가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이다. 마을이라는 터전

7) 이는 공동체 해체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동체 회복 및 지속과 유지 등에 대한 희망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마음의 발생원인은 바로 장소의 상실에 따른 것이므로, 마을주민들은 이 마음의 지속을 위해서는 기존의 마을이라는 장소와 같은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이주 단지, 같은 동의 아파트 등) 장소애착의 심정을 느끼게 해주었던 기존의 마을과 같은 장소 역할을 하는 여건이 있었으면 한다. 장소애착 심정의 유지 혹은 과거보다는 다소 변화된 장소애착 심정이라고 해도 그 마음의 지속을 위해 장소 역할을 하는 여건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공항 건설)의 결정은 오로지 국가에 의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추진과 철회를 반복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국가가 하는 일(국책사업)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더 굳힌 것이다.

“(공항 건설을)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뭐 나라가 결정해서 계속 저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들을 것 같지도 않고…어떻게 국가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더 실감합니다.”(N, 여성, 60대)

“국가에서 하는 것을 못 말리지. 들어온다는 것을 주민들이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반복된 시도와 철회)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F, 여성, 80대)

“국책사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거 반대한다고 해서 막아 지겠습니까? 한 번하고 두 번하고 또 취소하고 … 다 국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주민들이 하자 말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 그래서 신뢰감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저 국가를 이길 수는 없으니 …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같이 조그마한 동네에 사는 서민들보다 국가가 힘이 더 세다는 … 국가가 하는 거 뭐라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H, 남성, 40대)

“두 번이나 저렇게 하니깐 신망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정부 이기는 사람 없고 … 정부 시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또 유치한다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지요.”(I, 남성, 70대)

“국가에서 하는 일을 주민이 막을 수가 있나? 그것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노? 주민들이 말린다고 되겠나?”(G, 여성, 80대)

위의 내용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심지어 마을주민들은 두 번의 사업 추진과 반복된 철회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여기면서도 국가의 일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애초에 공항 건설에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예, 시위 등)도 그들의 표현대로 ‘국가의 일’, ‘나라의 일’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낼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정작 자신들의 마을에 변화가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념에 가까운 순응을 하고 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해지지 않고 해서 … 그때(공항 건설 계획 발표 때) 서운한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온갖 곳(대항마을 주민들이 아닌 일반 부산 시민들)

에서 우리 동네에 공항을 유치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그 난리를 치고 하다 보니깐 … 우리보다도 다른 사람들(일반 부산 시민들)이 더 우리 동네 공항건설에 대해 말하고 다니고 또 목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를 배제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국가가 하는 일인데…”(B, 남성, 70대)

“두 번째 시도 하고 또 그만 두고 하는 거 보니 세 번째 또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 생각이나 그런 의견 없이 진행되는데… 국가가 하는 일이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국가사업에 우리 같은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국가가 하는 일에 따르는 겁니다.”(M, 여성, 60대)

여기서 “큰 국가사업에 우리 같은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되지도 않을 것 같고”는 국가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기본 인식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 말 속에는 마을과 국가 간 대응 관계를 놓고 볼 때 둘 사이의 불균형적 권력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마을이라는 자신들의 장소 변화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사람들) 스스로가 아니라 국가가 결정해서 두 번째 시도를 하고 또 다시 철회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가의 의지나 의도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국가 상대의 열세한 위치로서 자신들을 상정하며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이깁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저렇게 하는 거(두 번 시도, 철회) 보면 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J, 남성, 30대)

“나라가 이 동네에 공항 들여놓겠다고 하면, 그래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육지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 공항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지난번에도 또 추진하고 그러다가 그만 두는(철회) 모습을 보니깐 국가는 국가가 하려고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어 보입니다. 국가사업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K, 여성, 50대)

여기서, 두 번의 시도와 반복된 철회에 따른 이러한 심적 영향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저렇게 하는 거(두 번의 시도와 철회) 보면 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또 추진하고 그러다가 그만 두는(철회) 모습을 보니깐 국가는 국가가 하려고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어 보입니다.” 등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마을보다 더 큰 영역으로 여겨지는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한 순응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마을주민들의 의사나 결정과 상관없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추진하고 철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의 힘을 더욱 실감하게 된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그 힘에 대한 실감과 함께 순응의 마음을 더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때,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마을주민들이 마을과 국가를 대응해서 볼 때 ‘규모’를 전제해서 생각하고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같은 조그마한 촌 동네가 무슨 수로 국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L, 여성, 50대)

“국가가 뭘 하든 이 작은 동네를 대수롭게 보겠습니까?”(M, 여성, 60대)

“위(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이 조그마한 섬이 무슨 수로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항을 만들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공항을 만든다는 것을 취소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커다란 일에 이 작은 동네가 무슨 고려가 되겠습니까?”(N, 여성, 60대)

‘촌 동네 vs. 국가’, ‘작은 동네 vs. 국가’, ‘조그마한 섬 vs. 국가’, ‘작은 동네 vs. 국가가 하는 커다란 일’ 등으로 대응해서 표현하는 말은 대규모 정부사업이 소규모 마을주민들에게 여겨지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위의 마지막 말은 그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즉, “국가가 하는 커다란 일에 이 작은 동네가 무슨 고려가 되겠습니까?” 공항 건설 추진과 철회 과정에서 대항마을 주민들의 의사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있었던 일이었고, 시의 입장이나 일반시민들의 목소리 표출은 있었지만 정작 마을주민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그와 같은 두 번의 경험은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위치로 생각하기 보다는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는 순응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인터뷰를 한 마을주민들은 공통적으로 공항 건설을 추진할 때나 철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된 사실 혹은 의견을 내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누구도 강한 반발심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국가의 대규모 사업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연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모습에 자신들의 위치에서는 감히 의견을 낼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스스로의 위치와 국가의 위치를 구분해서 국가를 더 상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저번에만 봐도” 라는 말처럼 두 번의 철회과정을 보고 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 위에 높은 사람들(국가를 지칭)이 하는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마한 동네의 일이 아니라 나라의 일이니깐...저번에만 봐도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뭐 높은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정해서 하는 것이니깐...”(K, 여성, 50대)

## V. 연구의 함의와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두 번의 추진과 철회로 인해 대항마을 주민들에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심적 영향을 미쳤다. 마을이라는 장소가 주민들에게 형성 시켰던 ‘장소애착 심정의 변화’, 그로 인한 대안적 장소 마련을 통해 ‘장소애착 심정의 지속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장소상실의 주체인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 강화’가 그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의 경우 장소애착 심정의 변화는 장소라는 애착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인 장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두 번째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애착 심정이 변화되는 것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대안적 장소를 형성해서라도 비록 변화된 애착이라 할지라도 그 애착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마을주민들의 심적 상태를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장소애착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장소정체성은 물론이고 장소근원성과 장소의존성은 장소를 대상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다. 그렇다면, 설사 장소애착 발생 요인인 장소가 사라진다고 해서 단기간에 장소애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 혹은 장소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장소애착의 심정이 변화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장소가 어떤 대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때, 그 장소가 상실되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 기존에 영향을 받았던 대상에게도 곧바로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김민주, 2019; Relph, 1976).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는 장소상실의 경과나 장소상실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한 이후의 시간 경과가 필요하다. 애착형성의 긴 시간만큼이나 그 반대의 현상(변화 등)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장소상실 혹은 장소상실의 가능성과 관련된 이벤트(event)적 요소가 함께 발생하면 장소상실이나 그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커지게 된다(김민주, 2019; Relph, 1976). 여기서 이벤트적 요소란 장소상실 혹은 그 가능성을 직접 소재로 하거나 그와 관련된 이슈화의 정도이다. 사회적 이슈는 해당 이슈와 관련된 대상에 대한 인지를 더 높여서 이슈에서 비롯되는 내용을 더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일 그것이 장소상실이라면, 이슈화된 장소상실은 장소상실 자체의 인지를 더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장소상실의 현실을 더 각인시킨다. 즉, 마을이라는 장소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전국적 이슈가 된다는 것은 마을차원의 이슈일 때보다 주민들이 느끼는 심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 형성된 장소애착은 장소상실에 따라 그 정도가 변화될 때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 이벤트적 요소가 있다면 그 영향도 더 커질 수 있다. 대항마을에서 나타난 장소애착의 변화도 이와 관련된다.

실제로 대항마을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 건설로 인해 마을이라는 장소가 사라질 수도 있다

는 가능성은 약 10여년 전부터 있어 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에 관한 논의가 그때부터 있었고, 그와 동시에 이벤트적 요소로서 대항마을은 두 번의 실제 추진과 두 번의 철회를 경험하였다. 각각 네 번의 경험(두 번 추진, 두 번 철회)은 대선 공약이 되는 등 전국 차원의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였다. 단순히 공항 건설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만 시간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추진과 철회 등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장소상실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더 높이게 한 것이었다. 특히 앞서 IV장에서 인용문으로도 언급했듯이, 두 번의 추진과 두 번의 철회는 향후 세 번째 추진이 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마을주민들의 마음에 심어놓았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정도에는 부침이 있었지만, 마을이 아닌 전국차원의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였기에 당사자들인 대항마을 주민들에게는 언제나 공항건설이 화두가 되곤 했다. 단적으로 아래의 말이 그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항마을 주민들에게 장소애착의 변화는 장소상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 10여년에 걸쳐서, 장소상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번의 사업추진과 두 번의 철회라는 이벤트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다리(연육교) 놓이고 공항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항상 무슨 말만 나오면 여기 우리 동네를 가지고 공항 건설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L, 여성, 50대)

“나는 언젠가는 공항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공항 들어온다고 하면서 정치 싸움하고 뭐 이러니깐 계속 늦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하도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러니깐 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들어오려고 했으니 들어 올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I, 남성, 30)

이와 함께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심적 영향으로서, 마을주민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긴 장소애착이라고 해도 지속시키고 싶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장소애착을 형성한 장소가 상실되더라도 애착이 없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심정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장소애착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변화된 애착이라도 유지하고 싶은 것은 그 애착의 강도가 적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변화되었음을 인정하지만 그것마저도 유지하려는 마음은 ‘장소애착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장소애착 자체에 대한 애착인 것이다. 쉽게 말해, ‘그동안 우리가 이 동네(장소)에서 정 붙이고 살아왔으니, 동네가 없어지더라도 예전처럼 그런 삶은 계속 유지 할 수 있을까?’라는 심정이다. 아래의 말에 더 자세히 드러나 있다.

“이 동네가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정 붙이고 살았던 것처럼 계속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 그래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정 붙이고 살았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가 없어져서 허전한 마음이 들더라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E, 남성, 70대)

마을주민들이 동남권 신공항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점이다. 대규모 국가사업인 만큼 장소의 상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형성된 장소애착의 마음까지는 상실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심리적 점착성(粘着性)의 현상으로 설명가능하다. A가 B를 발생시켰을 때, A의 영향(변화 등)이 B에게도 미치지만 B는 그 자체로 힘을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의 본질을 유지시키려고 한다. 점착성은 주로 제도를 대상으로 변하지 않으려는 속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여기서 제도를 비공식적 제도로 확장해서 보면 관습이나 문화나 풍속 등의 사회적 구성의 제약들과 장소애착과 같은 감정이나 신념이나 애정 등의 관계적 제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것들은 점착성을 지니며 쉽게 변하는 것에 대응한다(Moe, 1990). 따라서 대항마을 주민들도 마을이라는 장소로부터 생긴 장소애착의 감정이 점착성을 지니게 되면서 비록 장소상실은 되더라도 그 감정은 계속 유지시키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소애착이론에서 단순히 장소가 애착 형성(장소정체성, 장소근원성, 장소의존성)에 영향을 준다는 데서 나아가, 형성된 장소애착이 지니는 자생적 힘으로서 점착성(지속, 유지 등) 등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점은 향후 장소애착이론의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는 곧 장소애착이론의 이론적 보충의 기회를 갖는 것이 된다.

세 번째 심적 영향으로 나타난 것은 장소상실의 주체인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이 강화되었다는 점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항마을 주민들은 ‘국가의 일’ 혹은 ‘나라의 일’이라는 표현을 쓰며 국가나 나라가 하는 일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마을과 국가를 규모로 구분하면서, 마을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국가가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두 번이나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철회하는 모습에서 더 강화되고 있었다. 커다란 규모의 국가가 그보다 작은 규모의 마을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가 철회하는 등의 반복된 모습은 더 없이 국가의 규모에 의한 지배력을 실감하도록 해준 것이다. 이 점은 대항마을 주민들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 기존에 형성된 장소애착의 심정이 변화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근거한 판단으로 그 어떤 강한 저항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반복된 계획과 철회 경험에서 체감한 체념을 통해 알 수 있다.

“조그마한 우리가 데모를 한다고 해서 국가가 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 우리 같이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큰 국가를 이길 수도 없고… 별수 없이 그냥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O, 여성, 60대)

“두 번이나 저렇게 국가가 하려고 하면 하고, 또 안하려고 하면 또 안하고 하는거 보면 큰 국가를 당할 자가 없지 뭐…”(G, 여성, 80대)

이 말 속에서 마을주민들은 행위 주체의 규모를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본다는 점이 강하게 드러난다. 대항마을 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조금은 서운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들의 장소가 없어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무대에서 논의되는 사업이다 보니 자신들의 목소리 반영 요구는 물론이고 목소리 표출조차 엄두를 못 냈다는 점이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과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마을주민들은 직접적인 영향(장소애착 관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하지 않고 체념을 한다. 마을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대규모 사업이 마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된 추진과 철회를 하는 것을 보며 국가라는 존재의 존재감과 힘을 더 실감하며 그에 대한 순응의식을 더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마을을 대상지로 해서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와 마을 간 ‘규모’와 과거 ‘경험’이 마을주민들에게 심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사업추진주체와 대상지 간 ‘규모의 차이’와 ‘경험의 반복’이 핵심적인 영향이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될 때 국가와 마을 간 규모의 차이가 크고 사업추진 주체의 주도적 행위가 이루어진 경험(두 번 추진과 철회)이 반복될수록 마을주민들은 사업추진 주체에게 순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규모의 경제’에 빗대어서 ‘규모의 행정’이라고 불릴 수 있다. 정부사업의 규모가 크고 사업추진 및 철회 등의 과거 경험이 반복될수록 마을주민들의 순응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마을주민들이 저항이나 반대를 함으로써 조정 등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적어도 마을주민들로부터 비롯되는 정책비용 발생은 낮게 된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규모의 경제처럼 규모의 행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규모의 행정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사업비용(갈등 조정 비용 등) 절감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해도, 한편으로는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그 규모가 작더라도 행정 현장으로서 지역과 마을은 행정의 접점이 되는 지점으로서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규모의 행정이라는 비용절감 차원만을 고려하여 이를 간과하게 되면, 그것은 민주행정과는 모순되는 일이 된다. 나아가 단순히 민주행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마을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순응의식 강화가 권위주의적 행정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관점에 따라 규모의 행정에 대한 영향은 다차원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심층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연구 함의는 비록 동남권 신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환경에서 추진되는 또 다른 대규모 정부사업에서도 참고하거나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사례가 분석되는 등의 향후 추가적인 연구 성과가 도출되면 대규모 정부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심적 영향에 대한 더 보충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연구들에 대한 선행연구이자 기초적인 정책 자료로서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강서구. (2018). 「2018 구정백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 김동근. (2011). 단기 주거에서의 장소애착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5): 79-90.
- 김민주. (2019).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자산과 도시이미지. 「인문사회과학연구」, 20(3): 371-412.
- 김승일. (2011).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강원도 내 4개 댐건설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9(1): 53-82.
- 김현조 외. (2013). 동남권 신공항의 정책목표와 새로운 접근방법 : 역내 주민과 지방의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4): 7-32.
- 박경윤. (2014). 장소애착 형성요인의 환유 적용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5(6): 147-159.
- 박영강·이수구. (2016). 주민참여를 통한 신공항 입지정책의 갈등해소 방안. 「사회과학연구」, 32(1): 199-227.
- 박태우·이상식. (2013). 지역 갈등 이슈의 뉴스 프레임 구성에 대한 연구: 동남권 신공항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3(3): 251-297.
- 박홍엽. (2006).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비교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1): 149-188.
- 송화성·윤자연. (2015). 축제 방문객의 장소애착 영향 요인과 형성과정. 「관광레저연구」, 27(9): 321-341.
- 신상준. (2017). 공공갈등에서 정부의 갈등관리: 수도권매립지 사례를 중심으로. 「협상연구」, 20(2): 55-82.
- 안종묵. (2012). 인터넷 미디어의 유형과 뉴스 속성에 따른 뉴스 프레임 분석 : 지역 이슈인 '동남권 신공항'과 '광주 인화학교' 사례. 「언론과학연구」, 12(3): 201-230.
- 오영석. (2011). 공공갈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입는 심리적 피해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정책과학 학회보」, 15(4): 53-74.
- 유광의. (2010). 동남권 신공항 개발과 입지 선정 요인 연구. 「항공진흥」, 54(2): 155-169.
- 이윤경. (2012). 동남권 신공항 입지갈등에서 나타난 딜레마 상황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5-66.
- 이진수·이혁재·조규혜. (2015). 갈등의 공간적 구성 :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스케일의 정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3): 474-488.
- 이희수 외. (2011).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적용. 「한국해양공학회지」, 25(4): 54-58.
- 임동진. (2011).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45(2): 291-318.
- 장현주. (2008). 공공갈등의 원인과 이해관계 분석: 문화재관람료 징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

- 국정책과학학회보, 12(3): 29-54.
- 조경훈·유민이·이숙중. (2013). 공공갈등의 장기화 요인에 대한 연구: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97-1226.
- 채종현. (2009).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의 구조분석. 「한국행정학회」, 43(2): 147-176.
- 최열·임하경. (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0(2): 53-64.
- 하혜영·이달곤. (2007).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1995-2006년까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4): 329-356.
- 허준영·문지은. (2017). 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주민갈등 사례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4): 269-296.
- 허철행 외. (2012). 지역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동남권 신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1): 431-454.
- 황동현·서순탁. (2011).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동남권 신공항 개발사업의 정책과정 분석. 「도시행정학회보」, 24(4): 55-84.
- Altman, Irwin and Setha M. Low. (1992). *Place attachment: A conceptual inquiry*. New York: Plenum Press.
- Brewin, C. R., Dalgleish, T., & Joseph, S. (1996). A dual representation theor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ological Review*, 103: 670-686.
- Canter, David. (1997). The facets of place, pp.109-147, In Gary T. Moore and Robert W. Marans(eds.),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Springer US.
- Coles, Robert. (1972). *Migrants, Sharecroppers, Mountaineers*. Atlantic-Little, Brown.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319-345.
- Eisenhauer, B. W., R. Krannich, and D. Blahna. (2000). Attachments to Special Places on Public Lands: An Analysis of Activities, Reason for Attachments, and Community Connections, *Society and Natural Resources*, 13(5): 421-441.
- Giuliani, Maria Vittoria. (1991). Towards an Analysis of Ment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o the Home. *The Journa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Research*, 8(2): 133-146.
- Hashemnezhad, Hashem, Ali Akbar Heidari, and Parisa Mohammad Hoseini. (2013). "Sense of Place" and "Place Attac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e and Urban Development*, 3(1): 5-12.
- Hidalgo, M. Carmen and Bernardo Hernandez. (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73-281.



- Honkavaara, Sylvia. (1961). The Psychology of Ex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Monograph Supplements*, 32: 1-96.
- Hull, R. Bruce, Mark Lam , and Gabriela Vigo. (1994). Place Identity: Symbols of Self in the Urban Fabric.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28(2): 109-120.
- Hummon, D.M. (1992). Community Attachment: Local Sentiment And Sense Of Place. pp. 253-278, In Altman, Irwin and Setha M. Low(eds.). *Place Attachment*. NY: Plenum Press.
- Manzo, L. C. (2005). For Better or Worse: Exploring Multiple Dimensions of Place Mean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1): 67-86.
- Mazmanian, Daniel & Morell. (1990). The NIMBY's Syndrome: Facility Siting and Failure of Democratic Discourse. In Norman J. Vig and Michael Kraft(Eds.) *Environmental Policy in 1990s*. Washington DC: C. Q. Press: 123-143.
- Moe, T. M. (1990). Political insitiutions: The neglected side of the story.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6: 213-253.
- Moore, R. and A. Graefe. (1994). Attachments to recreation settings: The case of rail-trail users. *Leisure Sciences*, 16: 17-31.
- Morris, Ian. (2016). 이재경 옮김. 「가치관의 탄생」. 반니.
- Mullainathan, Sendhil and Eldar Shafir. (2014). 이경식 옮김. 「결핍의 경제학」. 알에이치코리아.
- Najafi, Mina and Sharif, Mustafa Kamal M. (2012). The concept of place attachment in environmental psychology. *Elixir Sustain. Arc.*, 45: 7637-7641.
- Pondy, Louis R. (1967).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s and Model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2(2): 296-320.
- Pretty, G. H, H. M Chipuer, and P. Bramston(2003). Sense of place amongst adolescents and adults in two rural Australian towns: The discriminating features of place attachment, sense of community and place dependence in relation to place ident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3): 273-287.
- Proshansk, H. M. (1978). The City and Self-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10: 147-169.
- Ross, Marc Howard. (1993). *The Management of Conflict*. Yale University Press.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 Rollero, Chiara and Norma De Piccoli. (2010). Place Attachment, Identification and Environment Perception: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2):198-205.
- Shamsuddin, S. and N. Ujang. (2008). Making Place: The Role of Attachment in

- Creating the Sence of Place for Traditional Streets in Malaysia. *Habitat International*, 32: 399-409.
- Smaldone, D. (2006). The Role of Time in Place Attachment. *Proceedings of the 2006 Northeastern Recreation Research Symposium*.
- Smaldone, D. and C. Harris and N. Sanyal. (2005). An exploration of Place as a proces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5(4): 397-414.
- Trancik, Roger. (1986). *Find Lost Spac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Inc.
-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Vorkinn, M. and H. Riese. (2001). Environmental concern in a local context: The significance of place attachment. *Environ. Behav.* 33(2):249-363.
- Williams, Daniel R. and Jerry J. Vaske.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830-840.
- Zajonc, R. B. (1968). Attitudinal Effects of Mere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Monograph Supplement*, 9(2): 1-27
- \_\_\_\_\_.(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2): 151-175.

---

**김민주 (金玟柱)**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의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2년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3년부터 동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는 공공인재학부장이다. 관심분야는 재무행정, 문화정책, 평가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재무행정학」(박영사, 2019), 「공공관리학」(박영사, 2019), 「시민의 얼굴 정부의 얼굴」(박영사, 2018) 등 그 외 여러 저서가 있고, 최근 논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자산과 도시이미지'(2019), '정권별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유형 탐색'(2018), '평생교육으로서 행정학 전공의 가능성 분석'(2018) 등 그 외 여러 논문이 있다. (minju0803@dyu.ac.kr, minju0803@gmail.com)